

7번째 줄부터의 문장입니다.

Thus, the safest way to discuss new information is **to** begin with what is known. **To** start with the familiar and then to add the new as variations from the old. **To** establish and remind one of *what is*, then show how it leads to *what could be*.

두 번째 문장부터 ‘**엇! 주어가 안보여요!**’라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문장의 음영친 to는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보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부터 주어가 안 보이는 이유는 구문이 변형되었기 때문입니다.

구문 학습을 하다보면 S+V, S+V로 해석될 수 있는 구문이 S+V; V (S가 동일)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의 해석법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쉽게 해석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 말고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설문이나 구어체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상대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보에 대해 대화를 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미 알고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말을 청중들이 잘 이해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부가적으로 더할 수 있습니다. "친숙한 것 부터 시작해서 이미 알고 있을 내용에 약간 변형된 정보로서 새로운 개념을 이해시키는 겁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즉, to begin with what is (already) known의 의미를 독자가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서 **상세하게 덧붙여서 서술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엄밀히 보면[;, -]등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기능이라 보시면 됩니다.¹⁾

따라서 주어진 문장을 풀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the safest way to discuss new information is [**to begin with what is known, to start with the familiar and then to add the new as variations from the old, and to establish and remind one of what is, then (to) show how it leads to what could be**].